

「글세 나는 더 못먹어요
 「그러면 너가먹고소 황송하지만은 술이나 혼잔 짜라주시구료
 슈일은 마지못하여 잔에 술을 부어 주며

「그런데 김영오장목전에 무슨일이 잇단말이오

「네! 그일뿐이 아니라 그외에도 또 다른일이잇셔요

「앗다 웬일이 그다지 만단말이요 어서말을 하시구료

「네! 인제 초초 말씀하시요 그러나 좀 취히야지 말근정신으로논 말하기어
 려운일이야요 나는 조금취할터이니 괴로우시지만은 나 술혼잔더짜라 주시
 구료

「취하면 무슨말을 할슈가잇소 취하기전에 할말은 다히야지요

「불가불 오날밤에는 니가 좀 취할터이야

이교(愛嬌)가 듯는듯흔 눈근쳐에는 홍쇼(紅潮)에 물들엇고 주피는 전신에도
 라 쾌락흔마음으로 슈일을향하여 처여다보고잇는 얼굴은 화병에 췌치여잇는
 췌가지로 잘못보기도 쉬울지라 흘어나리는 머리털을 귀치안아흔는 모양으로
 왼편손을드러 쓰러올나는씨에 분별갓흔손사락에 금반지와 보석반제가 두서
 넷이라 슈일은 이윽이 그모양을 한참보다가 다시 괴로운눈썹을 찡푸린다
 리슈일의 사정을 아는사람은 슈일의 얼굴을보고 고이타녀이지 아니하리로드

그러나 슈일의얼굴은 전일과 전연히 딴사람의 얼굴이되얏더라 사랑스럽고은
 화하던 괴운은한아도 업서지고 스년동안에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이 서로얼
 기여 풀나지 못하는괴석이 그얼굴에 덩히엿도다 휘여도 색기자아니할! 곳
 고 강흔괴운은 침울(沈鬱)흔 안색(顔色)에 나타나되 일즉이 심순의(沈順愛)
 를 티흔씨에 씻싯하고 다정하던빚은 그얼굴에 다시 나타나지못한다
 보는일도 냉담(冷談)하고 하는말도 근신(謹愼)하며 근리로 그것이 혼셔품을
 지엿더라 그럼으로 스름마다 서로 친압(親狎)하기를 쓰리며 즈기도 스사로
 사름과 친하기를 절기자아니할야 비록 동업자(同業者)라도 사람마다 슈일을
 편벽된 무정흔사람으로 멀리하고 갖가이하지안는다 엇지알나요 슈일의 경우
 와 수일의 마음을

신성(神聖)흔 남녀의 련의(戀愛)를 일흔몸으로 오히려 그신체가 광인(狂人)
 에서지 이르지아니함이 도로혀 고이항도다

슈일은 최만경의 호을노 흥에올나 술잔을 거듭흔모양을 삼히 온당치 못
 할야 녀이는 괴석으로 바라본다

혼잔만 더 쳐주시구료

하며 만경의 우음을 씌운눈에는 백부용(白芙蓉)흔 송이가 붉은빛에 반스(反
 射)됨과 갓할야 더욱다시 고흔터되 더할야더라

「여보 그만자시오 녀자가 웬술을 그것케만이자시오

「당신이 그만먹으라고하시면 내가안먹지요

「네가 억지로 그만두라는것이 아니니 즈량하야 하시구료

그러면 나는 취하도록 더먹을터이야

하나 슈일은 술을쳐서 권하지아니 하는고로 만경이는 스스로 짜라서 반잔이
나마시였는디 점점두뺨에싸지 붉은괴운이 올라온다 만경은 두손을드러
취할
얼굴을만지며

「아이고 나는 펍 취했소

슈일은 못드른체하고 고기는 마당으로 향하고 담비만피운다

「슈일시.....

웨 그리시오

나는 오날저력에 썩 혈말숨이잇는데 당신이 드러주시깃소

듯고말고 여부가잇소 만경시의 이약이듯자고 여기사지왔는데.....

만경이는 다시 입을가리우고 소리업시 우스면서

「아마나는 티단이취했으나보오 취중에혹시 실패하는말숨이 잇드리도 용서
히주셔야호오 후시 미타이 알아드르시면 자미가업소 그러나 술먹고 취담
으로 하는말은아니니 먼저알고 드르시오 네 아라드르셨소

슈일은 티답이업시 안장은티 만경은 슈일의업호로 박사갓가이 드러와안지며

「이술환잔만 더잡수시오 이후에는 결코억지로 권하지아니 할터이니 이번

환잔만 마드시오

슈일은 마지못하야 잔을받는다

「이제는 너원이 다플넛소

슈일은 속마음으로 원도 티단은 허루하다하며 웃기를 마지아니한다

「슈일시

네

「당신은 김정연시집에 오리도록 계실터이요 언젠든지 당신도 짜로나셔
독
립으로 빛노이를 할실터이지요

「암 그야 물론그렇치요

「그리면 어느씨쥌이나 짜로나실터니가

「지금이야 네가 무슨즈본이잇소 너밋천이 좀싱겨야 독립을할지요

최만경은 홀연 말을멈추고 무산싱각을하는지 고기를숙이고 슈일의 두루막이
고름을가지고 두손으로 접었다 폼다하다가 료리수집계집하인이 라이스칼(서
양료리의밥일흙)을 들고드러와 두사람압해놓는즈음에 만경이는 웃고름을노
코다시 스이가 뜨게 너켜안는다 계집하인은 두사람의동정을 이상하게 도라

보며 밧그로나 아간후 만경이는 다시 무산싱각을 하더니

이런말씀을 하면 수일시는 엇지아라 드르실는지 아지못하겟습니다 다만은 당
신도 일성 김정연시집에서 남의일만 하야 주실싱각만 말으시고 하로라도 일
죽이 독립으로 싱의싱실 싱각을 하시오 니일분담이라도 당신이 싸로나신다
고 하시면 니가..... 이런말씀을 하면 주저널다고 싱각싱실듯 하지요만은.....
이러한 아녀자의 힘으로 너너하는 혼달수는 업드리도 니힘에되는디로는
돌녀셔 들릴터이니 아모조록 그러케 하셔요

「그것은 무슨사담으로 나갓흔스름의게 돈을돌녀 주시려요

하며 수일은 만경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사담을 말하라는 말씀이요

하며 만경은 또 혼참은 말하기를 주저하더니

「그렇게 색집어서 말씀을 아나 하야도 아라드르시깃지요 님들 일성 씨레만
이집에만 잇깃소 나도그러하스정이 잇스니서 말씀이지요

수일은 짐짓 못아라듯는체하며

「지금 하시느말은 그뜻을 나는자셔이 아라들을수가 업구료

「웨이렇게 싱싱침을 빼이고이리오 정말 못아라듯는체하고

하며 만경은 눈물을기여 수일의얼굴을보며 손으로 수일의어귀를 탁친다

「나는 시장하니 먼저 밥이나먹깃소」

하며 수일은 소반우에 노인밥그릇을 압호로 다가노으며 사시를 들녀하느것
을 만경이는 사시를세앗으며

「우리 못치먹읍시다 술은잔석만 더먹고」

「나는 머리가압파서 술은더못먹깃소 만경시도 시장하실터이니 밥을자시
구료」

「나도 시장은하지오만은 니청을 당신이 드러주지아나하시면 밥못먹어서

비곱픈것보다도 니마음이 더 곱푸니 니가앗가흔말씀을 좌우간 디답을하야

주어야지요」

「디답을하라니 앓가 만경시가 하던말을 뜻을입디지 아라듯지 못하얏는길

디답을 엇지하오」

「엇지셔 니말을 못아라 드르신단말이요

하며 책망하는것못치스나희의얼굴을 바라보매 수일이도 준절흔 괴식으로

도라보며

「암만하야도 나는 사담을 알수가업는것이 다름이아니라 아모리 서로정다

이 교제하는터이라 할지라도 나갓흔스름의게 거리홀스본을 돌녀줄사담이

업슬터이니 우리는 스킨정분이 그러케 천밀치도못하디 니가 주인집에

서 싸로나 아오면 차본을 돌려준다 는 말이 아모리 생각하야도 그이허를히셔
홀수가 업는일이 아니요 밥이나 우리먹읍시다」
「알수업다니 당신은 너모도 심하시구료 그러면 마음에 들지가안아서 그리
심닛가」

「마음에 들지아니하는것이 아니라 아모서답업는 당신의게 니가 웨 돈을돌
려달란단말이요」

「아이그머니 니말이 그말씀할것이 아니야요」

「아니 나는 비가 대단이 시정하야졌소」

「그러면 수일시는 다른 이라도 얹전할스름의게 언약하야둔데 잇슴닛가」

만경이는 점점 로골덕(露骨的)으로 말을하난디 이르미 수일이는 더욱점점
말스귀를 아라듯지 못하는체하며

「별소리를 다못는구료」

하며 나오지아니하는 우슴을지으미 만경이는 더욱 답답함을 이기지못하야

「만일 언약하야 두신데가 업슬것스호면……… 니가 당신의게 청할일이
하 아잇셔요」

수일이는 이제야 비로소 아라듯는체하고

「네나도 아라드렛소」

「인제는 아라드렛섯소」

하며 만경이는 깃기움을 이기지못하는 모양으로 잔에 남아잇던 술을홀입에
드러마시고 다시 그잔에 술을부어 수일을준다

「아 이것을 또한잔 먹으라는말이요」

「이것한잔만 딱 잡슈셔요」하며 드러서 권한다

수일은 엇지치못하야 홀입을 바다마시매 만경이는 설설우스면서

「그술잔은 니가먹든잔인데」

일일이 하는말이 모다 속으로 찌마음을가지고 하는말이라

「인제 아라드르섯스니 티답을하셔야지요」

「네—티답하지요 그말씀은 니가 들을슈가업소」

수일은 그말을맞치고 업연이 안자있다 만경이는 수일이가 홀마디말로 써 준
절이 거절하고 다시 말이업슴의 지금까지 취하얏든술이 별안간에 섞이는것
곳하야지며 스나희의 괴적을 은근이 살펴본다

「나도 계집으로 이러흔 붓그러운말을 입박게 흘번녀어놋코 이티로 감안이
잇슬슈는업쇼 계집사름으로 이런말을 할때에는 여간결심을하고 말슴을하
얏깃소 당신의말슴이 못들깃다고하시니 못들을만흔 싸닭을 말슴하야주시
구료 내마음에 그리홀듯하게 생각이라도가도록 말슴을하야주시요 내가 이

말씀은 술먹고 룡담으로 한 말도 아니니.....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요 나 또한 스름도 스나희라고 엇덧께 보셨든지간에 이런 말씀을 하야 주시니 나로 말을 하드리도 결단코 기분생각이 엇는것은 아니요 마는 그덧듯 간절한 말씀 하시는데 디하야서 엇지 닐들 니마음속에 잇는말씀을 아니하깃소 그러나 나는 본리에 성품이 편협하야서 보통스름들 과긋치 성품이 활발치를 못하스람이요

나는 평생을 학도록 안히는 엇지 아니하교 홀아비로 살다가 죽기로 결심하스름이요 나는 본리 학교에 다니던 학생으로 중도에 학문을 「덕여바리고 이영업을 시작하얏소 니가 난봉을부리다가 이영업을 하는것도 아니오 학문을하기가 시려서 이영업을 하는것도 아니오 무슨영업이 엇서서 하필 이것을하깃소 박주에 강도짓과 긋흔 극악한일을하야서 스름의 피를 글거서 돈을작만하깃소」

최만경은 그 말을드르미 더욱 술이척이고 정신이논다

「이영업은 영업중에도 더욱 부정(不正)한 영업이라고 하나니보다 오히려 스름은 하지못할 악한일이라 하깃소그러나 악한일인줄을 인제야 니가안것도 아니고 니가처음에 이영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것은 달음이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스름도죽이고 나도 그자리에서 죽기다고 할만하원동한일이잇서서 그일로인연하야서 오날날 니가 이지경이되얏는데 그원동하는일은 전일부터 니가 엇더하스름을 마음으로 겁히밧고 그스름도 나를 잇지못하야서 서로저바리지 못하사이로 지니다가 우연이 제물이 눈을가리여서 언약도 저바렸고 의리도 엇서지고 나는 일기속담에 일은바 기밥에 도토리로 삼씩속앗구료」

등불빛을피하야 얼굴을돌이논눈에는 식로히 원망한마음에 눈물을 띄웠더라 「실상 밧을슈업논 이세상이오 인정도모르고 의리도저바리고 나를속인것은 그근원을 말하자면 모도 돈으로하야서 그모양이되얏구료 아모리 못생겼기로 명석이 스나희자식으로 생겨나서 돈의세력을 익이지못하고 남의게 속은생각을하면 그 원동한마음이 엇더하깃소 나는일평생을두고 이원한(怨恨)은이.....이저바리지 못하깃소

경박한지안으면 거짓말 거짓말아니면 리욕만잇는 이세상이니 이세상에 무슨 절거운마음이 잇깃소

그렇게 세상이 시르면 엇지히서 진시 한번죽어서 이저바리지를 못하느냐 고 의심하실는지는 알슈업지요마는 나도죽어서 이세상일을 이저바리고십은 마음이 향로도열두시로나지요마는 향도 원동하니 원동한마음에 죽으

려도 죽을수가 업소구료

그렇치마는 나를속이고 저바린스름을 보복하느는 마음은 죽금도업고 다만
니흔몸으로 그 원동흔일을 시원하도록 풀기전에는 쌍속에가셔라도 편안이
눈을 감을수가 업소 잠시라도 이렇케 고요히 안자잇스면 그마음이 가슴에
소스올나셔 거의 미칠지경이니사 빗장이갓흔 포학흔일이나 하야셔 스름을
세워놓코 말녀죽이듯이 하지안으면 잠시라도 가슴이시원치가 못하오그려
엇덧든지 이장사가 미칠지경된놈의게는 적당흔장스원다

돈으로하야셔 남의게 속기도하고 돈으로하야셔 남의게 육로보앗스니사 돈
업던것도 원동흔속에 혼조목이되오 만일 돈이잇스면 그원동흔마음을 쥘곰
이라도 푸러볼수가 잇슬가하고 인제는 나는 의리도모르고 인정도 모르고
질거움도 모르고 명예도 모르고 련의(戀愛)도 모르고 단지돈밧게는 다
시바라는것업소 또다시 생각을하야보아도 이세상스름을 밋는니보다 돈을
밋는것이 도러하낫소 세상에 못밋을것은 스름의마음이오 티강이 나는이
러흔 생각으로 이영업을 시작하얏소 앗가 말씀이돈을돌녀 쥘깃다하시니티
단이고마운말씀이나 나는 이려흔스름이니사 처지도외하시오

하며슈일은 하날을 우러러 크게우스나 그얼골은 티단이 격양하얏더라 만경
이는 슈일의하늘말을 일일이 귀를기우려드른후에 필연 저스름은 편협흔성품

에 아죽도 이세상에 련의의 쾌락흔자미를 허श्यक못하야 그러흔이나 니가흔
번달녀여 그마음을 돌니라 생각하얏더라

「그러면 니마음도 슈일시는 역시 밋지못히셔 의심이잇셔 그리심닛가」

「아니요 인제는 누구를 의심하고 말고가업고 나는아조실말흔스름이라 이
세상이 실코 모단사름이다 나는 시려요」

「그리 정말씀이오 죽기로써 즈쳐하고 당신을 생각하고바라는 스름이잇셔
두요」

「물론그렇치요」

「당신을 진정진심으로 생각하느죽을 당신이야알드리도」
「빋노이하느눈의눈에는 눈물도 업슴넨다」

이제는 다시 무엇이라할말도업고 만경이는 무료히안자잇더니

「그렇케말씀하시니 다시 혈말도 업고 우리밥이나 먹읍시다」

슈일은 밥을먹자하느말을 다형이녀이여 사시를 들고 엄도 도라보지아니하
고 반그릇이나 너머먹엇더라 그러나 만경이는 사시를손에들고 먹을섯각도
아니하고 밥그릇만물그럼이 드러다보고잇더니

「리수일시」

하며불을 썬에 슈일이는 밥을입에 가득이녀엇는지라 티답은일오지못하고 다

만 얼굴을 드리 부르는 스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나도 당신께 이런 말을 하려고 결심하였는데 만일 당신이 불령을 하시면
엇지 하나 하고 무한념녀를 하고 멧달을 두고 버려다가 오날은 모진마음을 먹
고 붓그러운말씀을 하였다가 이렇케 두말없이 거절을 당하고 보니 너 얼굴은
무슨색이.....너무도 무안.....」

한며 품으로서 슈건을 너여 야속한 눈물을 가리운다

「여보 슈일씨 나는 너모도 무안해서 이차리를 떠날수가 업구료 스름이엇지
한면 그럭케 지독하게 말씀을하신단말이오」

슈일은 예스로 도라다보며

「그것은 모르는말씀이오 니가 만경시흔 사름을 시려한다하였스면 그럭케
말씀하시기도 쉽지요마는 나는 이제상에 남녀를물론하고 모든스람을 다
시려하니야 야속하게 아라듯지파시고 다시싱각을 하여보구료 만경시는
진지를 아니 잡슈시오」

올어서 별거케된눈을 슈건으로좌우로써스면서 만경이는디답이 업다

「그러나 앓가말씀하던 김영오장목던에는 무슨일이잇단말이오 그말씀이나
하시구려」

「그진일일은 천빙날잇셔도 관계업셔요 슈일씨 그러나 나는 아모리한야도

당신은 잠시라도 이져바릴수가 업셔요 니마음이 그럭케 간절하줄이나 좀

아라주시오 당신마음에 시르신것이야 엇지할슈잇소마는 니가 진심으로 당
신을 이렇케싱각하고잇는줄을 영원히 잊지나마라주시구료 응」

「네! 아니 이져바리지요」

「디답이 웨그러호오 좀 정답게디답을히주시구료」

네 결단코 만경시의마음은 이져바리지 아니리다 이렇케하면 정답게디답
이 되앗소」

만경이는 별색일어셔더니 슈일의업호로 밧씩가셔안지며

「이져바리지마시오 응정말!」

한며 왼손으로는 슬며시 슈일의 다리를 두손가락으로 썩 썩잡는다

별안간에 알품을못이이여 그손을 뽕썩리치미 만경이는 모르는체하고 별색
이러셔며 손뼉을 탁탁쳐서 하인을 부른다

데십일장 西江別莊 (서강별장)

룡산(龍山)으로 조초비를 띄우고 가문돌(玄石)삼기(麻浦)를 바른편으로 바
라보며 한참동안을 느려가면 서강(西江)에 일출지라 그곳에 비를 다이고인
가를쳐다보면 강가에언덕우으로이슴충되는집이 구소(九霄)에 소스잇는것
갓하야 압호로는 강색(江色)을나려다보고 뒤으로는 인가를 압시하는집이잇

고 강편으로 향하는 일소정(一笑亭)이라 하는 큰현판(懸板)이 놓히달니엿스
 니 그집주인의리력을 잠간말을지라 그부친은 전일에 지위가 보국(輔國)에
 이르러 당시제도가로 명망과세록이 조선일반도는 능히 좌지우지에 감히 누
 가 거스릴스람이업고 성품이정직무스스야 인민이 모다 외복(畏服)하던터이
 라 그런고로 박보국(朴輔國)이라 하면 아동주졸(兒童走卒)이라도 모르느스람
 이업더라 일즉 할아들을두엇스니 일흠은 용학(容鶴)이라 심스오세세에 이르
 락 비로소 지기를쳐다라 시세의 변천이 날로 더스야 문호(門戶)를기방스야
 제제와서로 교동흠을면치못할줄알고 신문명(新文明)의공기(空氣)를 몸에받
 고즈스나 완고흠부친이 항상허락지아나스고로 유익의막슈로 앙양히 날을
 보니더니 호로는 마음을 결단스고 일본동경(日本東京)으로 불고이주스야 유
 학하기를 스오년동안이나스얏는디 그덕에 한학교에서 서로갓가이 지니기는
 김종리(金重培)라 그후에 그부친의 병보를뚫고도라와 인스야 그부친의상스를
 당스얏스니 박용학(朴容鶴)은루디의거부를 지기가임의로 조종하게되얏더라
 서강에잇는 강녕(江寧)은 거익의 근본을 드리여 승총으로 벼들집과 이총으로
 일본제도와 평집으로 조선제도로 칠팔십간을 동서양을겸스야 일즉이 조선현
 디에서는 보지못하던 집을견출스얏스니 이는 모다 박용학이가 귀국후후에지
 은집이라 그집속에는 객실(客室)과 서지(書齋)와 침실(寢室)을 모다 구별하

야 제반 오락(娛樂)으로 세월을 한가히보이니 글도 읽으며 그림도 그리며
 음악(音樂)도 희롱스며 또는사진술(寫眞術)도 스랑스야 년령은 스십을겨
 오넘엇스되 아직 안히를 맛지아나스고 나아가던지 드러오던지 항상 흥동이
 표연담박(飄然淡泊)스야 조금도 고귀(高貴)흐스름의 용의(容儀)는 짓지아니
 스고 쇼달하게 세상을 지니이되 스스스로 그 부요함과 품격엇는바는 스름마다
 울러러보지아나스는자—업더라
 그러흐으로 어진인연이 스방으로 드러음이 업는것은아니로되 도라보지도아
 니스고 스스스로 취흐듯밋친듯다만 풍류에만 마음을 위로스고 안으로는 무처
 주의(無妻主義)를 주장(主張)스야 용이히 남의 권고도 듣지아니흐다
 박용학(朴容鶴)은 일즉이 일본동경에 류학할때에 그곳 류군중좌(陸軍中佐)
 의 령량(令嬢)과 우연히회기로 서로 스랑을 주고받아 장리에느일하(月下)에
 가연(佳緣)을밋기로언약스고 지구의량산(芝區愛宕山)아리로 멀리보이는 품
 천히만(品川海灣)을서로 가라치며 저바다의물은 마를지언정 우리스랑은 변
 할날이 업스리라 굿게 서로 밍세스고 도라온후 그모친에게 이와갓흔 스실을
 고스고 허락을 령스얏더라 그러나 그모친은 놀니기를마지아나스고 어려서부터
 너의비필로 영은곳이잇거늘 이것이 무슨 청던벽력(靑天霹靂)과스흔말
 이요스며 인스야 허락지아나스고 병을일으켜 자리에눕는지라 그모친의 이와

장

한

몽

갓흔 모양을보미 박용학은혈일업시 간절흔 마음을억제하고 자로편지에 그와
 갓흔 스정을 자서히말하야 후일을 기다리고안심하라고 간절이 편지하야 그
 녀자의 마음을 위로하얏더라 그녀자는 먼곳에서 혼스름을바라고 하로가슴츄
 녀자는 근심과 슬음이싸이여 그러하얏든지 인하야병을일우어 다시병석을떠
 나지못하고 병석에 누어간신이 붓을잡은 필적으로 그남편 박용학의게 영결
 하는 편지훈장을 우체에 부탁하고 인하야 이세상에 다시 도라오지못할길을
 묘연히 떠났더라

그편지가 박용학의 슈중에드러오고 연하야 세상을바린 흥보를 절음의 박용
 학의 가슴은 천가지로 만가지로 터지는것갓하야 일시는 거의지각을 이러바
 리여 현제(現世)를 비관(悲觀)하는마음이 더욱더욱급히지고 이제는 세상도
 자미업고 산갓치싸인 지물도 귀흔줄을 아지못하며 다만 업서진스름을 성각
 하야 괴렴(紀念)으로 그사진혼자를 서지벽상에 거러노앗스니 그사진은 그녀
 자가 십구세속에 최후(最後)로 박용학의게 보닌것이러라
 박용학은 이렇듯 실망(失望)흔이후로는 세상에 뜻이업고 풍류(風流)와 오락
 (娛樂)에 침혹(沈惑)하야 몸과 집도 도라보지아니하고 다만 근심을잇고자
 벌나노는디 쓰는지물이 적지아니하다 그러나 그집에 부친시부터 세간을맛

장

한

몽

하보아주는 류원형(柳元行)이라 하는스름이잇스니 주인을위하야 능히 저정
 을 정리하고 모스하기를 정당히하야 이와갓치 지물을 도라보지아니하는 주
 인을 도아셔 다형이 큰일에는 이르지아니케하얏더라

류원형(柳元行)이라 하는스름은 지물을아는 스름이고로 주인이지물을 맛타
 가지고라도 뇌지물갓치 절용하고 그스이에 은근히 그의 수단으로 그의
 몸을 살지게하는것은 그지물을리용하야 빗산변리로 돈취리하는일이이라

일이천원으로 부터 뇌지이슴만원시지라도 능히 출랍을 용이하흔고로 그의
 에여러 돈노리하는스름들은 모다 그곳을 은형(銀行)이나 다름업시알고 큰돈
 을 거리하는스름은 본디 눈밝고 영리흔스름이고로 다만 돈이 느러가는것만
 증히여이여 아모스름이나 죽점으로거리하는일이업고 그중에도 가히 신용하
 고 착실흔스름흔아를 턱하야 그스름을 스이에두고 비밀히 돈에왕리를하야
 스름드른 류원형이가 돈장스하는줄을 거의아지못하게되얏스니 류원형이가
 가장밋고 스이에돈스름은 김정연(金正淵)이라

그럼으로 동업자(同業者)스이에도 김정연은 어니곳에 돈을티여주는 곳이잇
 슴은 디강 짐작하나 과연 류원형이가 김정연의 자본주되는줄은 자서이 아는
 자-업더라

이와가치 김정연은 금전에 세력이 있는고로 갖흔 동소하는스름사이에도 권리
 가 혁혁하여 모다머리를숙이게됨은 전혀 류원형과가흔 전주가뒤에잇서 녀
 업시 말하는디로 시형하여 주연고이라
 김정연(金正淵)은 본리빈한스름으로 처음은 가옥미々하는디거간으로 근근
 히 지니여가다가 다시 순사에 썩하여 여러히를근실히 다니엿는고로 경부로
 다시 승차하여 몇히入동안을 지니는디 홀연 돈이라하는것이 이세상에논권
 리오 권리가 즉 돈이라는 마음이싱기여 벼살다니는덕에 규모부리여 모흔돈
 삼백여원을 즈본으로하여가지고 무던디금(無典貸金)이라하는명목으로 제반
 부랑방랑흔스름들을 썩여주고 괴한에다다르면 위협도하며 달디기도하며 두
 다리기도하며 제간집힘도하여 요행이 법망(法網)에 걸리지아니하고 여러스
 름의피를글겨서 불과괴년에 칠팔천원의지산을 저축하였더니 그후에 다형이
 류원형(柳元行)과가흔 디자본주(大資本主)를엇어 등을지고잇스미 이른바 호
 랑이가 날키를 더함과가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일이십만원의지산은 능히
 운용(運用)하게되얏더라

이와가흔 김정연(金正淵)의집에 디리(代理)겸서사로 리슈일(李守一)이가 몸
 을부치여 스년(四年)동안을 주인김정연과한가지로 동사할덕에 일흠은 비록
 서사라할지라도 제반일을 모다겸하여 주인의집 고문(顧問)이라하여도 가할

더이오 김정연의신용도 두터왔다라

리슈일은 주인의일을 근실히보아주는 여가에 그의 조고마흔 돈량도 취리
 하여 일후에 큰돈을만들니라 그의가얏더라

리슈일은 다만 그집에 서사하는스름으로 일을잘하며 또는고문으로 계획을
 잘섬임으로 주인 김정연의 신용을 엿을썩아니라 슈일은 습심이다치지못하
 는소년으로 녀색(女色)을 못가히아니하며 술을 질기여하지안코 낭비(浪費)
 하는일도업스며 거으르지아니하여 책임(責任)을다하고 혈일은 근간이하며
 주인의게 거사리지아니하고 스름을 평론하는일도업고 공손하며 정직하고 또
 는 그의(氣概)와 의리(義理)가 업지아니함으로 이세상에논 돌도업는 유명호
 청년으로 생각하여 김정연은 그우히 마음으로는 도로혀 슈일의위인을 두리
 여한다

김정연은 슈일의위인을 안 이후에는 호을노싱가하되 저와가흔청년이 엿지하
 야 이러흔 사업을하고자 마음을두엇는고하고 의심하기를 마지아니한다 그러
 나 슈일은 자기의 리력(履歷)을 숨기고 엿더흔마음으로 돈을이곳에싸쳐였다
 는 말을 발표치아니하였스나 그후에이르러는 전일에 고등학교(高等學校)에
 다니여 졸업과한을 몇칠남기여 두지아니하고 퇴학한일은알엇더라 그러나 그
 외에 따로이 비밀한일이잇슴은 확실이아지못하고 오날날까지 지니여왔스나

곳까지 자셔흔리유는 못치아니하고 다만 일후라도 슈일을 위하야 독립으로
영업할씨에 뒤를보아주고자 김정연은 은근히 속마음으로 슈일을 신용하얏
더라

김정연은 지금나희 오십이오 그안히되논 공시는 스십칠세라 그남편김정연은
마음이 강박하고 혹독하야 남의근심을보기를 기의합힘보듯하며 남의곤난을
일보기를 나의질거움가치하야 탐하고욕심하기를 한이업스되 그안히공시는
남편의성질보다는 오히려 유순흔곳이잇서 악마(惡魔)같은스름의 계집으로도
능히 보통스름의마음을 가졌더라

그림으로 리슈일의 위인을 그남편보다 더욱 사랑하야 나의 친자질이나 다름
업시 친절이흐다

이와갓치 슈일은 엇더흔곳에서던지 환영을 밧고잇스나 가슴에 가득히 싸힌
원한(怨恨)은 이세상에 잇슬동안은 풀닐날이업고 스스로서와갓흔 사업을구
하야 천백가지에 곤난을 잡고 세상스름의 더운피를 마시여 싸인한(恨)의 만
분일이라도 풀고자함이러라

김정연(金正淵)은 세상사람은 엇지되얏든지 나의지물만 번식(繁殖)할복덕으
로 혹독하고음흉흔슈단으로 사람을 몰락하논디 그김정연의취무자(債務者)중
에도 극히 악독(惡毒)하고 간흉(奸凶)하야 본전번리를 합하야 삼년入 동안에

사천원이되얏더라 그러나 좌우로 칭탁하고 채무(債務)를 리행(履行)치아니
하고 도로혀 채권자(債權者)를 간사흔지혜로 몰락하논지라 돈노이에 로련흔
슈단을가진 음흉흔김정연의힘으로도 능히억제치못하고 인순하야 금일까지일
으릿스나 등한이두고불일은 아니라하야 최후수단(最後手段)으로 엄중(嚴重)
한 담판(談判)을하고자하야 하로논 리슈일(李守一)을 자기의 디리(代理)로
그집에보내엿더라

리슈일은 주인이 디신으로 그집에 이르러 아침부터 석양까지 조곰도 굴하
지아니하고 강경(強硬)흔슈단으로 채권을 독촉하미 채무자는 리슈일의 아죽
년치가 어림을 업슈히 녀이고 도로혀 항거하야 추호도 굴복하야살못됨은 말
하지아니하고 나중에는 숨척장금을 썩여들고 만일내가 도라가지아니하면 이
칼로 두도막을녀여 증계하리라위협하며 백인(白刃)을 눈앞해 번득이며 발로
차고 손으로싸리여 문밖으로 추출하논지라 리슈일은 몸에 다소 상처를밧고
혈일업시 짐으로 도라와더니 그후로 슈일은 도라와 다시 자기의 신세를싱
각하며 한탄하기를 마지아니하다가 그밤은 날이밝도록 잠을이로지못하고 인
하야 병을일우엇는지라 잊흔날도 몸을슈습하야 능히 자리에서 이러나지못하
고 자기의 처소되는 한간방에서 이불을덮고 드러누어 스스로 흐르는 눈물이
벼기를적시일뿐이라

이날은 슈일이 가 주인 의 일은 폐하고 분음과 원망과 슬음으로 종일을 보너
 더라
 그림으로 이러흔일을 당홀터마다 슈일은 몸만 약하야지고 슈척하야가며 호
 을노 생각하야도 자기의성질로 이 사업이 적당치못함을 석달지못함이 아니
 라
 슈일은 이사업을 시작호든 처음에는 일년入동안이나 일호든날보다 성치못하
 야 알코드러누엇는날이 만앗더라 그러나 그의듬히부더는 조금 달런이되야
 처음보다는 의속하얏스나 그마음속에는 결단코 이와갓흔 악흔일을 행하기에
 의속함이 아니오 다만 강잉하야 출고 억지로 힘음이니 슈일의 이와갓치 마음
 에업는 악흔일을 곱하야 하고자함은 전일에 가삼에 한번밧은 한(恨)을 홀로
 홀시라도 이질수가업고 싸이고 싸인 분홀마음을 이세상사람의게 풀고자함에
 지나지아니함이라 그러나 슈일은 때때로 자기의 잔인혹독 (殘忍酷毒)호칭동
 을 스스로 뉘웃치지아니호는때가 업스며 뉘웃치는데에는 양심(良心)의 가책
 (呵責)을 밧아 공연히 신괴불평호면 호로入동안은 병을 일으키여 누어잇는
 날이적지아니호다
 명랑하고 돌흔가을하날은 담々하야푸른남을 발나노은것갓흔터 집웅넘어로빗
 초여드러오는 허入발은 동남향(東南向)으로 빗치인영창에 쏘얏스나 그방안에

논자리우에 슈척흔업골로 슈일이 가 길게누어잇다 이불우으로 두팔을 너여놓
 코천정을향하고 반드시누어 힘줄과 뼈만 남은일골로 힘업시 무엇을싱각호다
 가논 홀연 한숨지으며 다시 이불을 머리서지 뒤켜쓰고 벽을향하야 도라놓는
 다이때에 밧그로 사람의 발자취소리나더니 영창압해 이르러서는 신발소리가
 똑싹이며 영창문을부시시열며 드러다보는사람은 그집슈인 김정연의안히 공
 시(孔氏)라 슈일은 안주인이 나음을보고 황망이 이러나려호는것을 공시는
 「웨 이러나라고 그리호나 압판사람이 그티로 누어잇지」호며 손에들고 나왔
 던 미음그릇을 방안으로 드러노으며
 「아침도 입디지아니먹고 시창호지안은가 미음을 조금 쑤어왔스니 조금마
 시게 그러나 어디가 압파서 그리호나」
 슈일은 미음그릇을 황망이 두손으로 밧으며
 「아니올시다 그것케 티단히 압파서 누어잇슬지경은 아니올시다마는 공연
 이 몸이 좀 썩부두두히셔……그러나 이것은 손슈이렇게 가지고 나오셨
 셔오」
 「여보게 죠미음은 식으면 토치안으니 식기전에 마셔두게」
 슈일은 미음그릇을 드러 두셔니 입에 마시며
 「영감씩서논 어나때쯤 출입 호섯슴닛가」

「오늘은 전보다 더 일찍이 아침도 잡슈시지안코 서강 박보국집에 간다고 가시데」

「네 그러면 류원형(柳元行)씨보러 가셨나 보오잇가 그려」

「말은거괴간다고 하시데마는 어티를가면서 그리는지누가아나」

「하며 공시는 별은간에 성난얼골을짓는다」

공시는 지금나히 스심을 겨오 넘엇스되 초년에 고성을 만이향야 그리향든지 오십이나갓가이 되여보이도록것들은 사람이라

두살적은 반박이나 되얏고이마에는 두셔너곳에 주름이 잡히엿다 슈일은 공시의 의미잇는것갓치 향는말을듯고 이상이싱각향야

「그것은 엿더케 하시는 말씀 이온닛가」

공시는 말하기를 심히 주저향는지라 슈일은 곳향야 다시 못고자향지 아니향고 미음그릇을드러 남아지를 다마시고 내려놓는다 공시는 치마자락을들고 퇴스마루우로 올라오지며

「여보게 지금 자네다러 말일제마는 양인의 첩노릇향는 최만경이라고향는 녀편네업나 그계집이 형실이 낫부다는 소문이잇데그려 자네는 입티지못드렸나」

「형실이 낫부다니요」

「앗다 그러케 못아라듯나 그계집이 남의사나회들을 모도 훔여다가는 돈을 짜라먹는디요」

슈일은 고기를 기우리고 놀나이 듯는모양이니 전일에자괴가 그녀자의게 괴로히구는일을 당향든때를 다시싱각함이라 공시는 다시 치우쳐서 말한다

「그러치 자네도 발셔 그런소문을 드릿깃지」

「나는도모지 그런말은 못드렸셔요 그계집은 그런것을 아니향드리도 돈업지는 아니향데요 그럴리업지오」

「앗다이런사람보앗나 돈으로만위히셔 그려나 모도 그런것은 제형실이 글너서 그러치 그런소문이 너귀에서지 드러오논티 자네가입티지 못드렸슬리가 잇나」

「글세을시다 나는 인제듯는니 처음이을시다」

공시는 무슨말을 할듯향다가는 도로곳치며 또말할듯향다가도 멈추고 먼산만 흘춤 바라보고 잇더니

「웃입고 단니는것과 모양을보드리도 그리보이지 아니향든가 자네는 절문사람이라도 마음이단단히셔 그런곳에 눈을쓰지 아니향니셔 관계치은차만은 그런계집향고 잘못상중향얏다는 춤 큰일나깃데」

「그계집이 그러향가오 나는 그런소문은 인제처음드렸셔요 향고다니는모양」

을보면 씨는 그런것을 하는지도 알수업셔요」

공시는 허리를 굽피여 미음그릇을 쓰러잡아단이여 들고흔춤이나 말이업시안
졌더니 다시 슈일의 얼골을 물그럼이 드러다보며

「다른사람더러는 이런말을 당초에 할리가업지마는 자네는말이 우리가 쥬
릭간이지 실상 여러허사동안 정든것으로말하면 천자질이나 다름업시 알고
있네 그러닛사 나도 밋고하는말일세만은 정말 큰일이흔가지 생각져서 엇지
하면 도홀는지 걱정이 적지아니흔데……」

흔며 공시는 미음그릇을 들고 공연히 이리보고 저리보고있다 슈일은 공시의
말듣기만 기다리고 있느니 공시는 다시 슈일을 바라보며

「넌가 실상 자네를 밋으니사 밋게는 말이나지아니 홀출알고 하는말일세
그러하니 이말은 사네만 드러두게」

「넌너마십시요 하지말나시는말을 입밖겐들 왜 넌깃슴닛가」

슈일은 권연흔기를 붓치려고 손에들고 석냥을 그으려하다가 공시를향하야
말나오기를 기다린다 공시는 후시 다른사람은 업는가하야 좌우로 도라보며
소리를 나작이하야

「요점부터 이상스러이 아랏더니 차차지니여보니사 암만하야도 우리영감이
그계집하고 무슨사들이 있는게야 아모리 생각하야도 아마 그러흔모양이

아

슈일은 석냥을그어 담비를붓치고 셨々웃는다

「그럴니가 잇습니가 그것은 잘못싱각하신 말씀이지오」

「아이고 이스름보게 넌가 모르깃나 넌가 여간담지를하고 이런말을 할리가
있나 넌가 다 안일이 잇스니사 말이지

슈일은 넌 대답이업시 한참 싱각하더니

「쥬인령감이 지금년세가 멧치시든가요 쉬인한아가 아니심니가 로인이나
거의되신양반이 그럴리가 잇습니가 무슨증거 보신일이 잇습니가」

「증거를 본일이 잇다는것이아니라 나는 다 짐작흔일이 잇스니사 말이지」
흔며 공시는 말을긋치고 다시 한참동안은 묵々한다 슈일에도 말이업고 다만
권연연과만 피우고있다 공시는 고기를숙이고 정신업시 마당만 내려다 보고
있더니 다시 슈일의 얼골을향하며

「사나희치고 누가 계집가가이하지 아는사람이 어디잇깃나 그러치만 이계
집은 천하에 상관못할 계집일세그러 차라리 첩을든다든지 기성을상관흔
다든지하면 넌가 무슨말을 할깃는가만은 최만경이라는 계집은 엇더흔스름
으로알고 그리는지 모르깃네 이런말을하면 자네라도 뜻기에 넌가 석암을
너여셔 하는말인가 할깃지만은 나도 나히 오십이나된것이 어린아히들모양

으로 식암을 녀여서 말뚝리가 있나 단지 집안일이 딱히서 하는말일세 그러
만일 그제집하고 길게두고 관계를 할다가는 그홍척흔 제집의 수단에 나중
엇지될지야는가 나는 그일이 녀녀가 되여서 하는말이야
집에령감도 그만것은 알만하고 썩썩도흔냥반인데 엇지서 요식로 그리하는
지모로깃서 오늘날도 아침일찍이 나갈제도 말은 서강을간다고 하였지만
정녕 서강가는모양은 아니야

그리고 요식로 벅석 모양도되고 호스도 하는것을 자네도보았깃지 오늘날도
서슬이 싹파란 식비단옷으로만 입고가서데 언제 서강가실썩에 그럭케호
스하고 가시는것보았나 정녕 다른딴것나니

「글세 정말 그러면 안되엿습니다그려」

「저스름은 에스로알고 고지듯지안네 정말그러면이 다무엇인가 나는 정녕
그런줄을 아는디」

리슈일의 괴식은 그말을 조금도 고지듯지 아니하는듯하야 공시는 더욱 마음
이 초조한다

「자네라도 얼핏싱각하면 니가 식암이나 나서 그리하는줄 알깃네만은 실상
그마음은 손톱만머리만썩도업네 단지 나는 집안한아를 위해서 하는말이지
그제집이 너간제집인가 엇져자고 그런것하고 상종을하는지 모로깃서

슈일은 아모리하야도 밋업지못하는 모양으로

「언제부터 그런줄을 아르섯습니까」

「바로 요식부터 그러하네」

「그러나 슈인썩서 설마그러실리는 업슬듯흔데 진정그러하면 큰 걱정이올
시다그려」

「그리기에 니가 조용이 자네를 보고서 말을하려고 하였든길일세 그러나
처만아랏지 아직도 증거를잡지 못하여서 바로 령감다려 말할수는업고 언
제든지 가는데를 한번 쫓쳐가서보고 등시포착을하려고 마음을먹고 있지마
은 나는 녀편네의 몸이되여서 그럭케 마음되되지는안코 나는 언제든지
자네다려 부락을하고 은근이 그동정을 자서이 좀 탐지하야 보아달나려고
하였더니 이럭케 몸이 불편하야서 누어잇스니가 어디말이나 하깃나 그려
처만 안으면 오늘날이라도 부락을 하려고 하였더니 공교하게 일이되엿네

니말티로 가서보라고 명령은하지 아니하나 그하는말이 명령하는 말이나 다
름이업다

「아니올시다 그럭케티단히 알코 누어잇도록 병이중하지는 아니하시서 무
슨 말씀이든지 하시면 제힘으로 될일이야 못하깃습니까」

「그럭처만 너모불안하지 안은가」

「불안하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어서 말씀 합시요 그러」
「그러면 괴운차려 이려나 깃나 그럴것갓흐면.....」
슈일이 가 꽤히 허락함을보고 공지의얼골은 깃거운우음을 띄우면서

「그러면 정말미안은후지만은 서감서지 잠간 단여다주깃나 박보국집에있는 류원형시 보러간다고 헛는뒤 정말갓던지 아니갓던지 갓슬것갓흐면 어느덕 가서 어느덕 도라왔는지 필연 너싱각에는 거기는가지 안앗슬똥하니서그 이하만 죠곰아라 다주깃나그러」

「아 그것시야 어러울것 잇습니가 그럼 지금 곳 다녀오지요」
「아 리슈일은 자리에셔 이려나 옷을가라입고 나아가려한다」

「아이 여보게 거러나가려나 너 인력거하나 불너올터이니 타고갓다오게, 공시는 급히 안으로드러간다」

슈일은 되마로에 거러안차 인력거오기만 기다리고 안갓는뒤 속마음으로는 신세의 한탄이 스스로 나온다

(이런제기 제계집은 남의게 빼앗기고 학교에는 졸업도 못하고 빗장이의 서사로 도라다나다가 나중에는 주인너편네의 비밀탐정(秘密探偵)이 되얏든가, 하며 생각할수록 호을노 하날을 우러러 우음맞게 나오는것은업다

데십이장 邂逅 (히후)

리슈일은 즉시 인력거를 모라셔 서감 박보국집에 이르러 류원형을 차갓더

라 그집은 외국제도로 지은집이라 놀흔곳에는 숨총집으로 지은집이 소스잇고

그압호로는 숨스천평되는 정원에 각석나무와 화초를심어 심수흔 경기는가 위 잠간동안 심산궁곡에 드러가셔 잇는것갓흔 감념(感念)이 스스로 이려날

만흐다

쇼산도잇고 괴석도잇고 연못도잇고 그스이로는 쇠불쇠불흔길이 잇는뒤 그길 로조초 호편엽호로 흥낭갓치 철팔간지여 노은집이 흐치가잇스니 이집은 즉

류원형이가 거처하는집이라 이집에이르러셔는 김정연이든지 리슈일이든지 공변도이 감히 초저서 못지못

하고 김정연을 초저보려하면 은근이 그스름의 거처하는집으로가서 종용이담 화를썩이라 이날도 수일은 다른사람이알가 모를가하며 류원형의 처소에이르

러 문안에 고기를 기우려 드러다본다 그러나 밤갓방에는 신발한켜레도 보이 지아니하고 또는 조그의주인 김정연의 신발도 업는지라 슈일은 후시 기간에

김정연은 발셔 단녀갓나 또는 아적오지 아니할앗는가 만일 오지아니 할앗스 면 과연 자그의 안주인공시의 말이 그러할듯이 싱각도난다 그러나 못지안코

는 저서호 리유를 아지못할터이니 아모귀나 안으로향하야 무러보리라 하고 안으로 쓰는방을 향하야 이리오니라 하고 소리쳐부른다 두서너번부르나 한 참동안이나 티답이업더니 밖장으로조조 열스오세나 되야보이는 계집아히가 반가이쫓차 드러오며

(아니고 오셨습니까 멀니서보고 나는 누구신가 향앗지요)

슈일은 급히 모자를벗고 인스후후 (아니 여보게 아모도 아니계신가 오날아침에 우리주인 김정연시가 후시오시지 아니향엿든가)

「네 못뵈앗는걸이요 오날은 이덕에 성신날이 되야서 손님도 여러분이오시고 분주하야서 우리아바지 어머니도 모도 안에드러가셔서 일보살피시느라고 틈이업셔요 그리지안아도 우리아바지썩셔는 당신오시기를 날마다 기다리시는데요」

「그리우리주인은 여귀오시지 아니향앗셔 그러나 어르신네를 잠간만 뵈을수업섯가긴히 의론할말이 잇는데」

「그럼 너가가셔 우리아바지썩 엿쥬어볼터이니 마로로 잠간을나와 안지셔요 잠간 너가 다녀올리다」

그계집아히는 류원형이썩이니 일흔은 정희라 일크르고 나히는 십오세라 여

러히동안을 저의부친이 김정연과 리슈일이논 덕일이와갓치 리왕이 빈번하고 또는셔로 정다이 지니는고로 어린마음에도 항상리슈일은 다른사람보다 친절이향는줄을알며 또는 그부친은 아모리 밧부고 골물향는일이 잇드리도김정연이나 리슈일이가 온줄을알면 다른일은 저치고라도 반다시 만나보논터이라 그럼으로 이날도 슈일은 저귀의집에 안쳐두고 그부친을 청하러갓더라 슈일은 호을로 마로에 거러안자 담비를피우면서 혼즈싱각하되 안스주인의 청을 밧아가지고 이에서지 이르렀스나 엿지호슈단으로 그니용을 엿지 알니호며장차 슈단을연구하며잇더니 조곰잇다가 정희라하는계집아히가 다름질하야 오더니 숨찬목소리로

「저가셔엿슈니가 지금 엿지밧분지 여귀서지 오실들이업스니 저위로 잠간만 올라오시라고 향셔요」

슈일은 즉시 정희를 썩라져 나무스이로 이리저리로 길을쫓차 한참동안이나 나아가다가 한곳에 다다르니 반송(盤松)아리에 덩결소쇄호륙모덩 호아이잇는디 교의도 여귀저귀노야잇다

슈일은 그덩즈에 기다리게하고 정희는 그부친잇는곳으로 드러갓다

류원형의썩 정희는 박용학의집에서 바나질과 계집아히의형실을 비호논여가에 마로우에 조출호 심바람도 향고잇는터이라 이날은 특별히 석옷을 가라입

고 여러 안손님을 접대하고 인도하는 주책을 맛타는고로 손님중에 맛춤 덩원
과 집차례할야 노은것을 구경코저하는 부인혼아이잇는고로 우선 벽돌로 서양
제도로 지여 노은 솜총집에 화려한 장식(裝飾)을 구경케하노라 섯불거리여올
나가는 총총디로쫓추을느간다

그부인손님의뒤으로는 덩희가 짜라셋는디 총총디를 반이나 올나갓슬썩에 압
해서서 올나가는 그귀부인이 얼마큼 화려히 단장하고 극진히 스치하얏는디
감안히 살피여볼지라

옷빛갓치 검은머리를 적도크도 아니하게 암전이 쪽지여 금빈녀 금귀기를
좌우로 노루스름흔똥만보이게 섯장스며 그우에는 보석박은 「빈」을 섯장스며
다시 그옥결갓흔 목도리는 가히어디가 비유홀디가엿다

옥석성고스겹저고리에 갓흔치마를 가느허리에 들넋는디 치마를원편팔로 접
어안고 귀온업는거름으로 간신히 총디를땀고 올나가는모양은 연약흔버들가
지가 가는바람에 나뉘기는갓갓다

뒤으로 짜라가는 덩희는 이와가치화려하고 어엿분티도에 눈이 흘니여 좌우
로 얼굴을기우려 귀부인(貴婦人) 모양을 보다가 다시원편손에 금반지와 금
강석반지를 두손가락에 세여잇슴을보고 홀연 덩신을 그곳에 썩앗기여 발똥
헤는 주의치아니하얏다가 드디여 총디를 헛드디여 모흐로 광하고 넘어젼더

라

뒤에서 정희가 넘어지는 소리에 삼작놀니여 귀부인은 뒤을도라보며 「아이고
머니 어디닷치지아니하얏서」정희는 넘어져서 나의압품보다 섯투른 귀인의압
해서 실수흔을 심히붓그러이 녀이여 얼뚱이 이러나며 얼굴은 붉어젼다

「안이요 관폐치안아요 닷치지안앗습니다」

하고 천연히 정희는 다시 그부인을 인도하야 양옥솜총우에 이르러 휘장과 창
문을열어 적기고 가장 경치조흔곳을 향하야가르치며

「여기서 구경합시요 여기서 녀여다보는 경치가 그중조와요

「참 경치가 조와이 석시— 강물이 바로 발아리로흘너느려가는 갓갓히이그
러 섯향니도느고 여기섯밭헤 잇는똥에서느는향과지」

이귀부인은 말개기인 가을하늘에놓히 솜총우에 올니셔 멀리눈가는곳을 바라
보고 잇슴이 고요흐마음은 완연히 섯결갓다

창문으로쫓추 빛초여드러오는 허나빋은 모흐로 그부인의 몸에 빛초이느디
손에세고잇는 금강석반지는 영롱하갓빛이느다

티스글한아업고 말고말근곳에 서々잇는 그부인의 티도는 옥호에 빙합똥흔가
지를 말근물에 못자노흔갓타여 정희는 비록 녀즈이로디 그부인의 아름다
운얼굴에 정신업시 흘니여잇다

그눈은 조고마호고 가느냐 듯는듯호정 이가득호얏고 그눈썹은 그리여 논것
 갓호며 그입은 지금피고조호는 싯봉오리갓하여 향기가코에 맞호이는듯호며
 웃독호코는밀가로호 반죽호야입부도룩입부도룩만다라노은것호다 살결은곱고
 윤력호며 빛은희고 머리는검은디 서양머리를 호얏다가 나리여쪽지엿는고로
 이마의 잔덜도썩지아니호고 련연호티도로 지은 이마는 더욱아름답다 경치를
 바라보고 서서잇는모양은 바람에도 쓰러질듯이 연약호야 보이는데 얼골은
 적이 슈척호듯호야 적막호고 은은히 근심잇는것호치 보인다
 그러나 이와호치 이목구비에 호가지라도 나무랄곳이 업시 아름다운 사람은
 지금것 일즉이 본일이 업슴을 정희는 호을노 은근히 놀니엿더라
 정희는 그것호 썩나지아니호고 그 부인을 바라보며 속마음으로는 그 귀부인
 의 팔조호것을 은근히 생각호다

그 부인의 금시계줄을 목에걸어 느린것과 좌우손에 금강석반지며 금반지를
 스오키식세고 잇는것과 금반혀 금귀이끼의 싯진것과용모와 티도의 아름다
 음은 명을타드리도 가호것이오 마차를타드리도 가호지니 누의게호호야 붓그
 러움이 잇스리오

부덕(婦德)을 다호고 선연(嬋娟)히 티어나서 그외에 또는 저산을 너너히가
 진비됨은 하늘의은혜 세상의 행복(幸福)을 겸호야 누리는 이렷듯 세상에 다

행호 스름이 어티잇스리오

비록 너편네라도 이와호치 팔조를 타고나면 그스름의 행복은 스나희보다도
 로혀 나으리라호야 어린계집아희의 마음에 부러워호는 마음이 스스로 이러
 난다

장
 평희는 탁조우에 올녀노여잇던 천리경(千里鏡)을 나리여 그부인의게 보기를

권호다 이것은 그주인 박용학이가 동경에서 유학호덕에 사서가젧는것이라

형상은 한줌안에 들지만은 그 멀리서지 보이는것은 가장신괴호다
 그부인은 천리경을 밧아들고 남북으로 멀리바라보미보이는곳서지는명박호야
 그물건의 정교함을 극히 놀니기를 마지아니호다

「여보게 석시 저그강건너로 가무스름호 산싯딕이에 하이스름호게 잇수
 시키 호호것이 보이지 그저보면 그러호티 이 천리경으로보니서 청양표가
 완연히 보이네그려 그우에 솔기미가 올라안진것도 보이네」

「네 조서이보지요 천리경중에도 이런것은 일본에도 들을고 서양국에도
 들으티오 저도 이것을가지고보며 먼디잇는것이 엿지 호가이보이는지 말쇼
 리도 들니는것호호말도 들니게 호스면 오죽 호켓습니가」

「말소리가 다들니게되면 스방에서 나는말소리가 한거번에 모도 귀로드러
 와서 복작복작호게」

이런듯 말을 하고 서로 함씩 우셨더라

「저는 처음에 이 천리경을 처음보고는 우리도 령감께 아조삼박 속았셔요 먼곳에 있는것이 바로 눈압해와서 있는것이지 안으냐고 저다려 무르시길 니니그렇습니다고 티답을 흥앗더니 령감말씀이 천리경으로 보고는곳귀에 다마티이면 말소리까지도 들리는법이니 그렇게 허보라고 하시깃지요」

그부인은 방긋이 웃으면서 정희의하는 말을듯고있다

「그리셔 저는 그말씀을 고지듯고 보고서는 얼뵈 귀에다가 티였지요

「그리셔」

「들니기는 무엇이들녀요 아모소리도 들니지아니할길니 아니 들님니다고 령감씩 말씀을하니서네가 귀에다 티기를 잘못티야셔 그러타고하시고 령감이 손쇼히셔 법을마르쳐 주셨셔요 그때는 마님께 아시네가 여러분이 게헛섯는티 모도다 속으시고 흥번식은 다들 귀에티여보섯지요」

그부인은 참다못하야 실쇼하기를 마지아니한다

「아이고 거진말인줄 아시고 작고우스시네 그리셔 그리셔 암만히도 아니 들니저오 영감씩셔는 빨니티야 들닌다고하시셔 엇던아시흥분은 너모빨니 하시다가 귀사박휘를잡시 닷치여셔 피가마 나섯담니다」

그부인은 웃기를 마지아니하며 듯고섯는티 정희는 교의를잡어다가 부인의게

안기를 권하고 다시말을시작한다

「여러분이 아모리 드러도 아니들닌다고 하시니서 나중에는 령감씩셔 친히 드러 보시더니 참말아니들닌다고 하시면서 일본잇슬때는 잘들니더니 엇지흥앗셔 아니들니는지 모로깃다고 아마풍도가 일본과달나셔 그러헌가보 다고하시니서 모도그런줄노만 고지듯고 잇섯저오 그러케속고 잇기를 일 년동안이나 지니엿셔요」

손에는 천리경을들고 귀로만 정희의 이야이를 드르미 이왕 여러스름을 속이 든일이 눈압해보이는듯하다

「주인령감씩셔는 원악 즈미스러운 낭반이시라 시럽슨말씀을 잘하시느게지 요」

「처음에 일본셔 곳나오섯슬때는 그러케 즈미스러우시더니 이슴년저는 별 노우스시는모양도 뵈을수가업고 엇지 엄할신지 몰나요」

그부인은 교의에 한참 걸어안잣다가 셔셔히 이러나셔 다시 천리경을 손에들고 그압흐로 잇는정원을 이리저리 바라보더니 흥편을 향하야 반송나무아리에 룩모정잇는곳을 바라보니 그정즈엽흐로 두스름이 셔로향하야섯는티 흥스름은 룩십이나 넘어보이는 반벽이나철신넘은 로옹이오 흥스름은 슝십이 넘을나팔나흔 절문스름이라 정즈 기등에도 가리고 솔나무가지에도 가리여셔

자서히 보이지 아니하는것을 이리저리로 구리이는 물건을 피하고 절문남주의
얼굴을 자서히보니 이는곳 이슴년동안을두고 이르러야도 잊지못하고 은근
히 마음을 띄우든 그남주의 얼굴이라
우연히 이곳에서 그남주의 얼굴을보미 천리정잡은 그부인의손은 홀연 벌벌
떠니여 나아온다

흐르는물에 금을것는것보다 오히려밋업지 못한 련이 (戀愛) 는아참져녀과밤
과 낮을 물론하고 잠시라도 잊지못하고 스년동안을 지니여 오든오날까지라
도 부벽루(浮碧樓)를 빛초이든 일석은 오히려의연히 몽롱한것만은 하로밤
에 눈물을 썩리고 리별은 그스름의 얼굴은 조금도 사라지지 아니하고마음속
에 김히김히밋치여 비가오는날이든지 바람 부는밤을 물론하고 다만 그스
름의 무스티평하기를 마음속으로축수한다

마음은 전일에서 조곰도 변함이업건만은 그스름의 싸인한을 밧고지니는심
순이든 이곳에 잇도다 다만 마음으로 그스름을 생각할뿐이오 한번리별은 후
에는 다시 소식을 아지못하였더니 그동안에 무산수구로운 일을하였는지
나히는 만치아니 하였스되 그얼굴은 초최하여 숨십이상이나 되야보이는데도다
공궁하게 지니는지 몸에 부친의복도 간신히 램루음은 면하였스나 전일과갓
치 검소하여 그러할가 곤난을 면치못하여 그러할가 엇더할곳에 지금몸을의

타하여 잇는지 지향업는마음으로 천스만탕하미 생각할수록 가슴은 타지는것
곳다

그남주는 무산이약을 하였는지 빙그럼이 웃는얼굴이 천리경안으로 완연이
빛초이든디 그부인의 두눈에서는 천리경다인 류리밋호로 두줄눈물이 구실곳
치 흘러느려온다

스스로 목이매여 오는 우름은 참기어려워 우름소리가 입박게 는오려하느
그엽헤는 정허가 잇는고로 간신히 입살을 씌물어 진정하였스느 흐르는눈물
을 혈일업시 수건을너여 씻는다 정희는 눈물흘리는 모양을보고 삼씩늘너
여

「아이 왜그리셔요」

「아니야 그런것이아니라 는는분디 안력이 시원치아니하야서 무엇을 한참
만정신을차리여 보고잇스면 현기가느고 눈물이 이리케 흐른다네」

「그럼 그만보시고 교의에 걸어안지셔요」

「아니 섯섯도 관제치아니하니 어렵지만은 나를 닝슈흔그릇만 떠다주게」
정희는 디답하고 곳아리로 향하여 내려가려하는것을다시불너

「석시 아리느려가거든 너가 현기느셔 닝슈차는다고 말하지말고 모로느체하
고 물만떠가지고 올느와」

정희는 「네」 대답하고 아리로 느려간후 그부인은 다시 천리경을 들고 그곳을 바라보더니 소스나오는 눈물이 눈을가리며 스름의얼골도 아라보지 못하게 되 었는데 천리경을 괴운업서 더지고 교의에 쓰러져서 누기여며 울고있다
 이와같은 귀부인은 전일에 심순이 리수일과 평양에서 리별후후 임의네변 때 가을을 만났더라

이날은 박용학의 성일이니 그남편되는 김중비와 한가지로 이곳에 이르렀는 디 김중비도 평양으로부터 전위하야 올노와 제반스름 주선하야 박용학은하 고즈가지 아니하는것을 김중비가 권함으로 마지못하야 이날 성일잔치를 비 설함에 이르렀더라

박용학은 전일 일본에서 유학할때에도 서로 갖가이 지님은 멀니척분이 잇 슴으로 인혼일이라 박용학은 오히려 김중비와 친밀이 지니기를 간절이 생각 지아나하되 김중비는 아모조록 박용학을 친절이하며 갖가이 상종하기를 원 하는고로 박용학도 굿하여 물니치기 어려워 서로왕리는잇스나 결단코 마음 을 허락함은아니라 그러나 아지못하는스름은 말하가를 박용학은 저산이만은 고로 일후에 그스름을 리용을 음용형성같이잇서서 그러함이라하나 실상은 그러함도아니오 다만 박용학은 문별잇고 괴구잇고 명망잇고 저산 잇는고로 여러방면으로 보는바이잇서서 천코즈할뿐이라 그런고로 김중비의 친절하다

는 봉우는 손꼽아제여 불지라도 모다 주석상에 일시적 회롱에지너지 못하는 친절이오 화복(禍福)을 갖처하는 심교(心交)의벗은업는 스름이라 김중비는 다만 봉우간에만 그러할뿐아니라 현금에 할가지로 고락을 갖처하자는 그 안히되는 스름도 일키 비루한영업하는 김정연의집 서사의게 할조각불근 마 음을 향하야 잇지못하는 눈물을 썩리는도다

순이논 이곳 교의에 의지하야 엽해 스름업슴을 다히이녀이고 울기를 마지아 니할다가 정신을일코 황연히 다시 전일부벽루아리에서 리수일의게 발스길을 맛고 넘어져서 슬피 울고 잇는시절을 다시 계속하얏더라

이씨에 아리충으로조조 총디로올나오는 발차취가 울이여 들니는고로 순이논 얼푸시 눈물을 슈습하고 천연흔티도를짓고 벽에걸닌 그림과 스진등을 치여 다보고있다 정희는 물그릇을가지고 올라왔는지라 밧아 두서너목음을 마신후 에 다시 창문으로 나가하나아가서 약가바라보든곳을 보고있더니 정희를손짓 하야 불으며

「여보게 석시 잠간이리와 저—괴 정즈긋흔것이 잇는곳에 웬사름드리 두리 서서 무슨이악이하고잇지 거기도 모도이딴에 썩닌정즈애요 그리고 아리로 「어디요네—저—괴온나가거기도 모도뒤에 썩닌정즈애요 그리고 아리로 보이는 조코마흔집이 흔치잇지요 그것은 저의집이올시다

「그러면 식시네 집도 이딴에 합씨 짚니엿구면
 「그집은 모도 덕에 짚인집이올시다 그리고 이편정즈압해서 이악이하고 있
 는데는나가 저의아바지올시다
 (영) 「그리 식시 아바지는 퍼혀으섯구면 그러나 그 절문스름은누군가」
 「그스름은 식문밖스름 김정연이라나요 하는집 장스도하고 돈노이도하는스
 림의집 서사하는 리수일이라든지요」
 「그러면 니가 잘못보았군 똑 갓흔스름도 있는게야」
 「식문밖 어디스름 스팀인구」
 하며 아즉 세상일을 분간치못하는 정희를 달녀여 자셔흔 동리일흠싸지 못하고
 자흐다
 「식문밖 닝동이리요」
 「그런데 그스름이 식시집에는 각금오나」
 「네 종종오니다」

이말을 드르미 순이가 비로소 리수일이가 식문밖닝동 김정연의 집에 몸을붓
 처여 있는줄을 아랏는고로 이우에는 엇더히괴회를 타든지 한번만나보리라하
 야 세상에 다시업는 혼키보비를 엇음보다도 더욱기거운마음이 난다

한번리별후로는 만나보기는바라지도 못하려니와 소식까지 돈절하야 싱스
 를 아지못하든 스팀이라 하날에 빌고 붓쳐의게 괴도하드리도 힘이능히 밋지
 못할 오날날 우연이이곳에서 얼골은보고 주소까지 아랏스나 호을노 바라
 보고 또흔 다시 리별후에는 진정으로 본심이아니라 비록 그스름의 눈총을만나
 드리도 서로 얼골을향하야 언스는 서로 밧고지못하드리도 두스름이서로보고
 얼골이라도 아라보면하야 습년동안을 사랑에 주리엇든 순이흐마음은 초췌하
 기를 마지안는다
 그러나 다만 녀녀되는것은 남이 이상이알가 두리워흐다
 남은 아지못하고 다만 니흐몸에 슈치가 되는것갓흐면 얼골에 침을비앗는일
 이잇드리도 오히려 실타하져 아니흐마음이로되 우연히 만났일은 이괴회를
 늦치가 어려우나 서로 만나보는것은 오늘날로 절정함이 아니라고 초췌하 마
 을 어지로 진정하면서오 오히려 정희를 달녀이듯하야 정원을 구경코즈흐다
 이덕에박용학과 김중비와 그외에도 여러빈익은 모다 한편익실에 모히여 술
 상이 버려졌는디 순이는 정희을 다리고 조용히 첩문으로췌츠 남모르게 슈목
 스이로 몸을숨겨가며 외면으로는 정원을 구경하다하나 마음으로는 스연히
 정즈를 향하야말스길이나아간다
 그스름이 지금 저정즈압페 잇는것을보앗스니 그동안에 철마 이문박글 나지

는 아니요 샷스리로다 만일 이곳에서 서로 만나면 한편으로는 반갑기는 하려니와 또 한 가슴이 놀라우리니 그색은 너의 몸을 엿지 처치하리오 하고 화초를 구경하려는 마음은 꿈결에도 업고 정희의 뒤에 따라오며 이것저것 가르쳐주며 하는 말은 조곰도 귀에 들니 오지 아니하고 가슴만 두근두근흔다

정원을 구경하차고 나오든 귀부인이 구경을 하고는 모양은 조곰도 보이지 아니하고 고기를 속이고 혼주 무산말을 하는 듯 또는 놀니 이는 듯하며 근심에 싸여 걸어가는 모양을 정희는 이상히 보았는지

「그저 괴운이 좃치 못하셔서 그리심니가

「아니 지금은 아무러치도 아니하니 그삼이 조곰 올녕을 념하야셔 그리

「아이고 그러면 안으로 드러가셔서 조곰 누셔서 진정을 하시지요

「아니 관계치 아니하오 방안에 드러안잠는 것보다 이럿게 바름을 쓰이고 형 괴하는 것이 나아요

이길로 나가다가 만일 그스름을 서로 만나 보면 피하려 하야도 좁은 길에서 능치 못할터이오 정년코 억기를 셋치고 지니여 갈터이니 만일 이뒤에 따라오는 스름만 업슬것은 흐르면 너의 진정으로 바라는 원이로되 아모리 지각업는어린아 히라 할지라도 남의 이름의 잇는디 엿지하리오 너의 마음은 서로 만나 드려도 모로는 스름조차 천연히 하려니와 그스름을 만나서 엿지 놀나온 마음이 나지 아니하

리오 본티부터 이몸으로 하야 한을 먹음고 잇는 스름이 비록 만나 드려도 그스름이 나다려 말을 하고는 지는 아니하리라 생각하되 아모리 생각하야도 길에 지니여 다니는 스름조차는 피쳐에 지니지 아니하리로다 그스름은 순익을 이곳에서 만나 보면 그놀니 이는 모양이 엿하야 원슈를 만난 것조차 그스름의 분동흔마음이 엿하리오 그스름이 이몸을 보고 분동하는 괴식을 정희가 만일 보면 이몸을 얼마큼 피이히녀이리오 이와조차 여러가지 생각하야 가슴속에 왕리하미 마음은 더욱더욱 슈구럽고 거름은 스스로 너이기지 아니흔다 엽흐로 짜져나아가는 다른길이 잇스면 몸을 피할가 하고 정희다려 다른길이 업는나 무르미 싸로이 길이 업슴으로 더 답하는지라 철일업시 스디로 드러가는 줄을 알면서 도스스로 그곳을 질기여 향하야 감을 누웃치고 진퇴를 엿지 혼출모로는 순익의얼골은 점점 변하야 저스 빛과조차 된다 엽흐로 싸라가는 정희는 귀부인의 괴식을 살피기를 마지 아니흔다

순익은 정희가 저괴의 행동을 이상이 녀기는가 하야 억지로 마음을 가다듬으며 거름도 빨나하야 연못을 지니여 룩모정이 갖워지미 순익은 더욱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나 이곳만 무스히 지니여 가면 하는 생각에 빨니 그곳을 지니고 즈는는색에 혼스름의 그림자가 무스이로 보이더니 홀연 철팔간 동안되는 곳에 스름의 형체가 나타난다

이새에 순이의 눈은 별안간에 그몸밤을 당한것과고 가슴속에서는 방망이질을
한다

리슈일은 일노조초 도라가서 주인이일을 공시다려 잘 꾸미여디여서 일후
에 확실한증거를 잡은후에 일을처단함이 가항리라상각하며 중절모즈를 눈섭
우에 김히 눌러쓰고거름을 총총히향야 집으로도라가는길이러

홀연 압흐로향향야오는 두스름의녀저는 슈일의눈에 띄웠더라 향스름은 익이
보던 류원형의 딸인줄을아랏스니 얼골을 가리우고 찬란흔의복으로 귀부인훈
스름은 그집에다나려왔든 부인손님인가 향앗슬뿐이라

홀편으로는 가고 또홀편으로는 오는고로 서로 홀간동안이느껴향야지고 슈일
은 정희를향향야 가노라향는 뜻으로 은근이인스향는것을 순이는 길엽흐로
박삭비키여 도라셔서감음이 엽눈으로 흘녀보았더라

그얼골스빛은 박삿이 달아리에 빗초이느것과향야 그참담흔 귀운은 외모에
나타느니 어는곳이든지 익이 모든스름의 모습이잇는것과다

길엽흐로 빗기여셔잇는 순이의 다리는 별별떨니고 가슴은 두군거리며 지
금에 터질듯향다 몸에 떨니이는 모양을 남의게 보일가향야 억지로 진정할스
룩 더욱 다리는 떨니고 가슴은 두군거리며 눈물에 어리운눈으로 슈일의 얼
골만 운무중과치보이고 그몸은 살아잇는지 죽어잇는지 스스로 석닫지못한다

슈일은 모즈를 다시 곳치여쓰고 지니여 가려홀지음에 우연히 지니여 가는눈
결에 잠간 그귀부인의 얼골을 바라볼적에 그부인과 서로 얼골이 마조쳤더라
슈일은 비로소 그얼골을 아라보았더라

아—순이로다 간부(姦婦)로다 돈동록 너음셔가 촉비향는도다 향며 처음은
놀니이고 또는 분그렁중향야 흘기여보는눈에는 눈물이 가득향야 만만흔 손
으로 흠키여잠을늦이 살이 떨니여 나오는것을 이를 악물고 간신히참았더라

반가웁과 붓그러웁과 슬픔이 흠씩 모히여잇는 순이의 가슴속은 이는곳에다
가 비유할곳이업고 남의 이목만업시면 그스름을보듯고 미여말니여 니가삼에
잇는 회포를 마음디로 원정을향련만은 마음만 슈구럽고 이몸은 마음디로 되
지못하니 엇지향면 니마음의잇는 진정을 저스름의게 통향야주리오 다만슈

일을향향야 엽흐로 바라보는눈에는 홀업는 마음이 먹음어잇듯 홀뿐이라
슈일은 홀연다시 다름질향듯이 거름을향야 지니여와더라
순이는 저그의 얼골을 정희가볼가향야 고기를 도로키고 발뺏만 바라보며 거
러간다

정희는 슈일과 순이의 향는모양을보고 자셔흔 리유는 아지못향느 터강 피이
홀일을 생각향앗는저 귀부인의 얼골이 심히변흔모양을 알건만은 다시 못지
도아니고 홀참동은이느 써라가다가

「안제 그만은으로 드러가시시오 신석이 어디가 압후신 어른깁습니다그
러」

「그렇게 얼골빛이 달나졌다」

「아조 헛속하얏습니다」

「그렇게 얼골이 번하얏서 그러면 저리로도라셔 정조에게 가서 잠간 구경이나
하고 가세 우리는 신의가 불평하면 이룩케바름을 쏘이면 좀 느으니서 찬찬
이 드러가세 오늘날은 식시를 너모 쌀고만 단이여셔 너모 불은하야」

「아니 천만에 말씀을 하십니다그려」

순이는 무명지에 세엿든 금반지흔리를 빼여 정희의 손을 붓들고 제여주며

「식시 이것은 변번치 아니할것이지만은 줄것이업스니 이케는 제여두게」

정희는 놀나이기를 마지아나하며

「아니 이것은 왜쥬셔요」

「그렇게 스양하지말고 셋여두게 아모드러리도 이것을 너가주드란말은 하
지말게」

정희는 멧변을 스양하다가 마지못하야 밤아세엿더라

순이는 다시천연한구식을 지어나 우연이 만는본 슈일의얼골은 가삼속에 사
이인것호야 이드려하야도 잇기어려우며 스년동은을 가삼속에 싸이고 싸

이엿든 생각이 오늘날은 더욱 가슴속에서 불이듯이러는며 금키어려운 고통(苦
痛)은 가슴이 러질듯하다 판알 너집에잇서 이러할일을 당하얏스면 마음뒤로
울기라도 하얏스련만은 이목이번다한 남의집에와서역지로 스름을티하며 역
지로웃스며 억지로 쾌락한괴식을 짓고자함이 진실로 괴롭고 심난하야 괴운
을 차리지하난모양이 스스로 고기난 괴운업서 압흐로 속으러진다

연못을 다시너여눗코 화초는무스이로 간신히 룽모정잇는곳까지 이르러 교의
우에 펼씩쥬져은지며 길게 흘숨흔번을 짓는다

이덕에 뒤으로서 스름의 급히달녀오는 말즈취나더니 계집하인이 좃츠오며
「아이그 여기게신것을 그러케 스방으로 츠지러단엿습니다그려 은에서 마
님씩셔 드려옵시리요」

순이는 이곳까지 이르러서는 마음을 진정하려하얏더니 진정은 되지아니하고
도로혀 괴로운심스를 진정처못하야 정신업시 은갓다가 계집하인이 불은는소
리에 섬자놀나여 몸을이러 은으로 드러가고즈하다가 흘연 괴씩하야 싸에 펼
씩업드러진다

계집하인 두스름은 간신이 귀부인을 구호하야 정신을 차린후에 좌우로 부축
하야 너실로 드러호더라

(광고) 무한한취미는데이권을보시오

